

## 꽃별

제1회 졸업생 문지훈

내가 머물던 그곳엔  
언제나 설레는 향기가 피어 있었어  
저마다 다른 향기들 그리고 색깔들  
무엇보다 각자만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지  
지금 되돌아 보면 그 꽃들은  
꽃별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나 봐  
각기 다른 모습과 색을 지닌 꽃들은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다른 꽃들이 보지 못한 모습들을  
서로 알려주면서 닮아가고 있었지  
그렇게 각자 쌓아가는 시간들이  
점차 모두의 시간으로 쌓여가고 있었고  
결국 그 시간의 끝에는 우리 모두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되었어



그 시간의 흔적들을 읽어보면  
좋은 날, 힘든 날이 모두 녹아져 있고  
그 속에서 웃고 울었던 다양한 시간들을 볼 수 있지  
언젠가 이 시간들은 빛이 바래겠지만  
지금만큼은 이 시간에 기대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아무리 깊은 어둠이 찾아와도  
너무나 외롭고 추운 밤이 찾아와도  
우리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불현듯 올려다본 밤하늘엔 항상 꽃별들이 반짝일 테니까

##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시기를 함께한 친구들에 대하여...

제1회 졸업생 최효진

“이것 봐, 이제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면 다음에 누가 무슨 말 할지 다 안다니까!”

이 말은 학교생활이 끝을 향해 갈 무렵 우리가 교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이제는 서로를 알 만큼 알았으니 당분간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우리는 꽤 쿨하게 길고 길었던 우리의 학교생활을 마무리했다.

살면서 특정한 친구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나 역시 발도르프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매일 밥 먹고, 놀고,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추억들이 쌓인다. 그렇게 쌓인 추억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입을 오르내린다.

우리는 12학년 때 가장 많이 우리의 추억들을 나눴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연도라는 생각에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까지 다 끄집어 내려 했던 것 같다. 우리는 주로 점심시간에 원으로 앉아 밥을 먹으며 친구들의 흑역사를 마음껏 떠들어댔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듣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로는 학급여행이나 실습 때 있었던 일, 전학 온 친구들의 첫인상, 연극을 준비하며 있었던 일,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신 선생님들의 강렬한 수업 등이 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점심시간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 반 이상은 전에도 수없이 했던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 때마다 입안의 밥알을 튀어나오게 한다. 가끔은 밥 먹다 말고 한 명이 저학년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누가 “어엇!! 그 노래는!!”하며 따라 부르고 그렇게 떼창을 하기도 했다.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나눌 추억도 많기에 우리의 점심시간은 조용할 틈이 없었고,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할 때도 할 이야기가 끊임 없이 나왔다.

왠지 모르겠지만 난 상급에 올라오고 나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장점과 매력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서 내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확실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친구들이 질문할 때 손을 드는 높이와 방향,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생기는 이마주름의 개수,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정도, 수업 도중 화장실을 가는 타이밍 등 오랜 시간 함께 하므로 인해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다.

제각기 다른 개성을 띠고,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반 친구들이지만, 딱 한 단어로 그들을 엮어본다면, “너



그러움”이다. 이 너그러움은 평범한 너그러움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앎으로부터 나오는 너그러움이다.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나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밥을 먹을 때 참 많은 사진을 찍는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세 걸음에 셀카 한 장,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셀카 30장, 음식이 나왔을 때 음식 사진 3장, 식사를 하며 셀카 50장 정도를 찍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은 “야야~ 그래~ 효진이잖아~~”라고 하며 귀찮아하면서도 너도나도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민다.

이러한 친구들의 너그러움 덕분에 난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왔다. 내 나이 이십이 되기까지 살면서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더 그렇다. 돌이켜보면 나를 잘 아는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너그러움 덕에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실컷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다. 나를 잘 건디고 끝까지 받아준 우리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친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땐 그랬지 하며 하하호호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비록 같은 나이지만 나보다 더 아는 게 많은 친구들이 가끔은 인생 선배님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학급 여행이나 실습에서 친구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친구들에 비하면 내 머리에는 정말 뜬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세상 사는 데 문제없겠다’하고 안심이 된다.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기에 이 학교에서 꾸준히 나의 배움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로부터 받은 선물 중 하나이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겠지만,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만난 이 친구들을 대신할 친구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시기를 함께한 찐친들이 아닌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들이 있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길을 잃더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기에 오늘도 한 발씩 내딛어본다.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0행시

제1회 졸업생 최동근

**서** 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세워졌고

**울** 이가 졸업을 했다.

**자** 신과의 싸움에서

**유** 쾌 상쾌 통쾌하게 이길때도 있었지만,

**발** 걸음을 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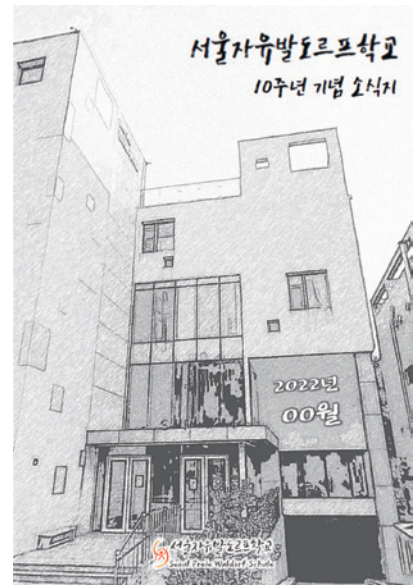
**도** 망가고 싶을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내게 했던 말

**르** 려도 괜찮아

**프** 로젝트, 오이리트미, 연극 모두 지나갈 거야. 이제 난

**학** 수고대한 사회를 향하며

**교** 문을 나선다.



## 학교를 마치며

제1회 졸업생 김가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매번 에포크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에포크를 마치며”, 일명 “에마”라고 불리는 글을 공책에 써서 냈다. 에포크 공책 제출 기한 하루 전날 밤, 밀리고 밀린 공책 정리를 다 마무리해 갈 때쯤 쓰던 그 글은 항상 약간은 두서없이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당연’하게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장을 적어나갔다.

그렇다. 당연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 학교를 다녀왔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공책 맨 뒤에 “에포크를 마치며”, 혹은 “프로젝트를 마치며” 같은 글만 쓰던 우리는 “학교를 마치며”라는 글을 쓸 나이가 되었다. 비로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12학년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항상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선생님들은 내 댄에는 무척이나 어려워 보이는 주제를 잠깐 이야기하며, 이 내용은 상급되면, 12학년이 되면 배울 거라는 말을 자주 하셨었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도대체 12학년은 어떤 학년인가 더욱더 궁금증이 솟아났다.

사실 막상 직접 졸업 학년이 되어보니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변화는 없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어렸을 적 가진 환상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느꼈고, 나의 생활 또한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저학년 교실을 가게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발도르프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노란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 밀랍과 초 냄새 같은 게 훑 다가오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떠오르게 했다. 나는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많은 걸 잊고 또 많은 걸 새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은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그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 준 가장 큰 존재는 바로 우리 서자발 최고학년의 친구들이다. 길게는 10년까지도 같이 학교생활을 한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서로의 시간과 이야기들을 기억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타이밍, 발표할 때의 습관, 수업시간 손을 들 때의 제스처, 싫어하는 음식 등 사소한 부분을 포함해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일까지도 알고 있는 우리는 한 데 모이기만 하면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깔깔거렸다. 가끔은 잊어졌으면 하는 나의 이야기들까지도 기억해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반이 완전체로 함께 모여 있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가끔 우리 반 부심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곤 하는 나지만 그만큼 나는 우리 반이, 또 그런 우리 반이 만나게 된 우리 학교가 좋았다. 물론 나도 매번 아침이 될 때마다 밀려오는 졸음에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했고, 새벽까지 쌓이고 쌓인 과제들을 하며 얼른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며, 일요일이 끝나고 다가오는 월요일을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비록 지금 이 글이 졸업하고, 힘든 과제, 프로젝트 다 끝내고, 평일 낮 내내 놀다가 새벽에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말이다.

학교를 다니며 내게 큰 영향을 주었던 그 많은 활동들을 다 얘기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 에포크 수업,

과목 수업, 악기 연주, 노래, 오이리트미, 프로젝트, 연극 등 정말 많은 빛을 찾아 헤맸던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언젠가 되더라도 그리울 순간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지만 막 졸업을 한 이 순간만큼은 그냥 모두 즐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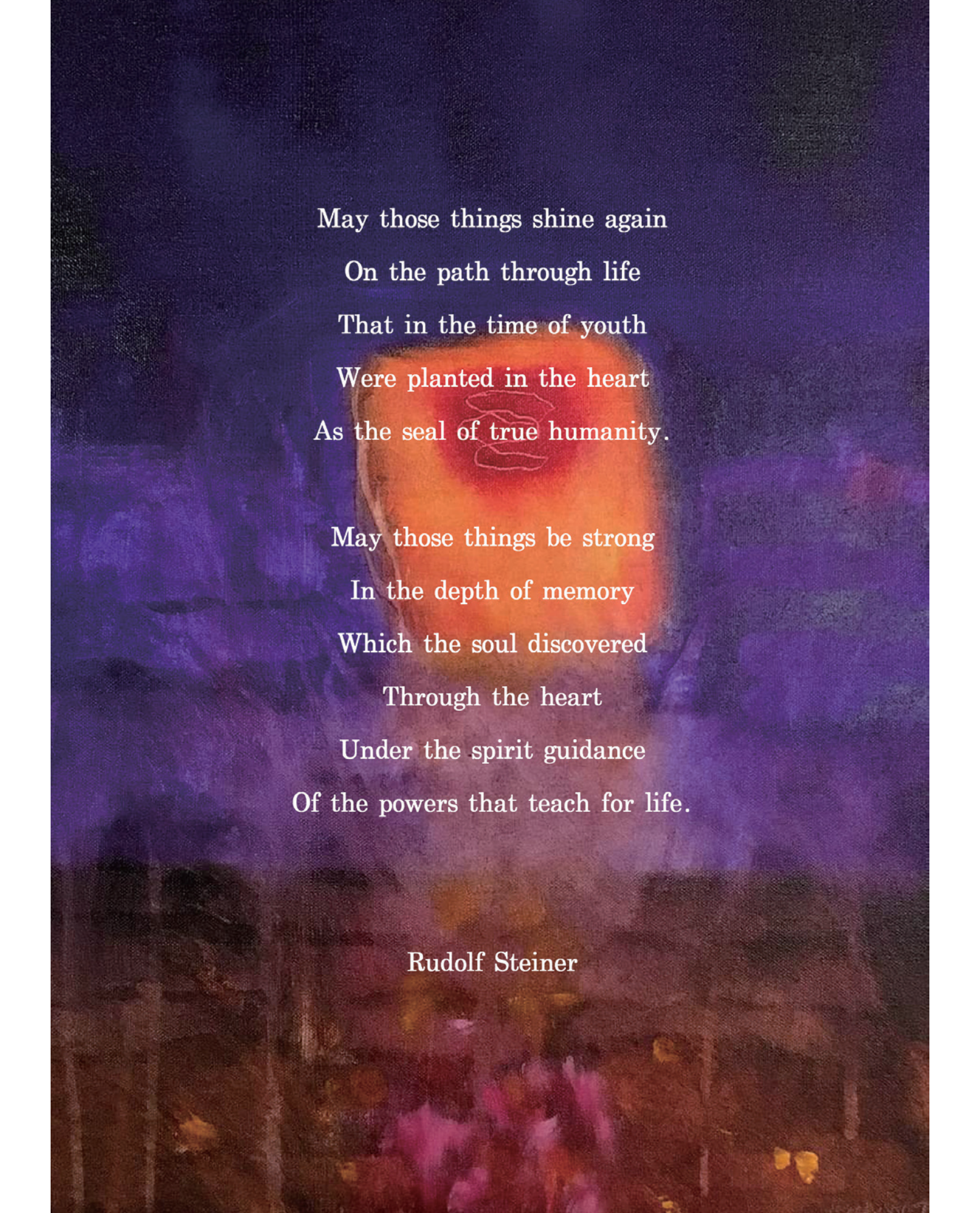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처음으로 서 견뎌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또 그 무게가 주는 짜릿함이 있었다. 다른 학년들과도 같이 지내면서 너무 즐거웠고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했다. 사랑을 주고받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 일을 많이 겪어봤기에. 앞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 많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하나의 장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시간. 불꽃처럼 타올라 바람처럼 불어올 그 시간을 위해 또 열심히 나아가보려 한다.

모두 모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May those things shine again  
On the path through life  
That in the time of youth  
Were planted in the heart  
As the seal of true hum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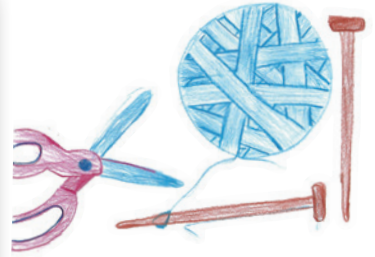
May those things be strong  
In the depth of memory  
Which the soul discovered  
Through the heart  
Under the spirit guidance  
Of the powers that teach for life.

Rudolf Steiner



말이가 남기는 글...

우아 ~ 서울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벌써 10주년이나  
 도가야? ㅋㅋㅋ 그럼나도 이제 열살이 되는거잖  
 아??! 세월이 너무 빠른거 같아!  
 내가 태어날때 같이있던 친구들이 지금 12학년이  
 되어 곧있으면 나를 떠난다고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떠나니까 나는 무가 허전한거 같아,  
 하지만 나는 계속 친구들과 함께 할거야!  
 어차피 친구들은 나한테 놀러올꺼니까!



2021년 마지막 날에  
 말이가 남기는 글

아무리 두렵거나 지칠지라도  
 목표가 있었기에 달릴 수 있었다  
 배움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친구가 있었기에 일어설 수 있었다  
 끝에서 돌아보니 행복이었다

최동근

말이가 남기는 글

그냥  
 사는 거지 머.  
 지내다 보면은  
 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제시간이 오기도 가  
 지각두 하구.  
 욕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기대도 하고  
 욕기도 내고 도망도 가고  
 사랑도 하고  
 초초.....  
 사랑도 하구말야.  
 똘  
 그렇게 사는 거지  
 히히  
 그냥 사는거지  
 머.

2021. 12. 31.  
 마지막 날  
 윤승완

감나무 밑 학교엔 어떤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감나무 밑 학교엔 어떤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공간 처음보는 사람들에게 주눅이든 소년은  
 주눅이 들었다는걸 숨기고 싶어 유난이 큰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다시 나아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항상그려왔던듯이  
 시간이 지나 학교는 감나무 밑을 떠나 산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학교에는 실재에 끝자락에 다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나무 밑 아니 산자락 밑을 떠나야만 하는 소년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소년은 어쩌면 처음 감나무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눅이들어 다시 큰 행동을 할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다시 나아갈 겁니다  
 처음처럼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감나무 밑을 잊지 않느라 감나무를 가슴속에  
 품은채 말이죠.  
 그 소년은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다만 돌아갈수 없는 평생 잊을수 없는 감나무를 위해 말이죠

- 12학년 정유진

## The Letter From First graduates

큰크리로 이루어진 길은 달리다가  
 높은 담장의 숲을 보았어.

담장 너머 높은 시성과 영애가보지만  
 그렇기에 따듯하고  
 그렇기에 행복하고  
 그렇기에 그들만으로도 완전해서  
 그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

높은 담장.  
 별로 한몫하지 않았어.  
 문을 넘은것도 심문이었지만  
 담장을 넘은것은 더 심문이었어.

어제 기술은 나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으로 완전하지  
 우리 안에는 먼저가거나 후이 있어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할수 있을거야.

타오르는 불꽃처럼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길.  
 투명한 생들처럼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남아있길.

변하는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건  
 당연한거야

어떤 일이 찾아오든  
 언젠가는 우리를 지나칠테지만

그것이 남기고 간 흔적은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날테니

2021  
 불꽃으로 써 있을게, 바람으로 불어올게

“ Fall in love with something that  
doesn't make you think love is hard ”

- dong hwi Yoon -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어디서도 얻기 힘든 좋은 추억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들, 꿈들 모두 펼치고 당당히  
꽃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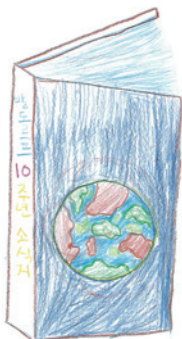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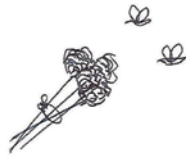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저희 수업 하신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

love yourself.

when come tomorrow,

love yourself more than yesterday



저는 몰랐죠. 좋아하는 날이 진짜 틀렸어야  
저 14년만이 풀림 처음해보았. 이전.

학교를 나오는 날이 가장 쉬운 날이었어  
아직 아무것도 실감나지 않는게 이상하기도 하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저에게 앞으로 한동안은 해인한 빙자리로  
그런 인생동안 든든한 뿌리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녕! 안녕히계십시오!



# 따뜻한 손길들











# 부모님



# 7

## 아이들의 친구 이야기

유연오, 연준 모 김은애

### 이야기 1

2022년 2월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말한다. “2월은 정말 바빠! 내 생일 잔치 준비도 해야 하고 22일에는 노리 생일이고 23일에는 단우 생일이야! 24일에는 하연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준비하려면 정말 바쁘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노리는 친구네 집 고양이, 단우는 2학년 동생의 동생, 하연이는 2학년 동생이다. 하루 종일 노느라 정신없이 바쁜 아이가 어찌 아래 학년 동생, 동생의 동생과 친구네 애완묘까지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이의 마음 씩씩함에 가슴이 뭉클뭉클해진다. 아이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일까? 아이 마음의 울타리는 없는 것일까?

### 이야기 2

서자발에 온 지 만 3년, 아이들과 장을 보러 다니거나 동네 산책을 할 때면 첫째, 둘째가 내 옆구리를 찌르며 말한다. “엄마! 방금 12학년 형님 지나갔어”, “12학년을 네가 어떻게 알아?” 하면 ‘그걸 왜 몰라’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8학년 형님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이의 흥분도는 조금 더 높아진다. “엄마 \*\*형아야!! \*\*형아!! %%(친구) 짝꿍 형아야~” 하면서 지나간 형님이 간 곳을 계속 쳐다본다. 내 짝꿍 형님도 아니고 친구의 짝꿍 형님까지 호들갑을 떨며 말하다니... 나는 누군지 몰라 이름을 듣고도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다. 내가 학교에 다녔던 시절 나는 위 학년 혹은 아래 학년과 얼굴과 이름을 알

았던 적이 있었던가. 한 학급에 50명이 넘었고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를 다녔던 나는 다른 학년에 기억에 남는 얼굴이 없다.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위 학년에 대한 이미지는 ‘무섭다’이다.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위 학년이 무서웠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복 입을 언니들이 교문 앞에 있더라도 하면 친구들끼리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위 학년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니... 위 학년에 대해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 이야기 3

둘째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날은 동네 놀이터에서 5학년 형님들과 같이 놀이를 하고 들어온 날이다. 아니 1학년 꼬맹이가 거뭇거뭇 수영이 나기 시작하는 5학년 이랑 같이 노는 게 가능한 일인가? 엄마가 동생과 놀아 준다고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학교에서 스쳐 가며 얼굴을 몇 번 마주친 게 다인 것 같은데... 우연히 보게 된 그들의 놀이는 5학년 형님들이 오구오구 이쁘네 하면서 1학년에게 쳐주고 동생들은 그저 좋아 형님들 꿈무늬를 졸졸 따라다니는 식이었다. 생각하지 못한 조합과 그들의 놀이 호흡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리고 감사함이 밀려온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울려 놀 수 있는 곳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

2019년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 체육대회를 한 날, 시간이 날 때마다 8학년 무릎에 앉아 놀던 1학년 아이들이 떠오른다. 너무 인상이 깊어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장면. 나이와 관계를 떠나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낀다. 우리가 함께하는 서자발 공동체의 힘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10년간 쌓은 학교와 구성원의 사랑의 힘으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서자발,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 말을 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나는 너의 나이다

민여원, 주원 모 항정유

*“사람이 먹는 양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걸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보기에 좋아 보이는 농작물이라도 사람의 위장을 채울 수는 있어도 사람의 내면적 건강까지 유지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큰아이가 올곧이 일반 학교에서 5년을 보내고 나서, 작은 아이의 신입학을 기회로 두 아이 동시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 문을 두드리면서 떠올린 저희 가정의 가치 중의 하나는 ‘건강’이었습니다. 경험상 전형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으나 운 좋게(!) 합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이사를 두 번 해야 하는 큰 수고가 있었어야 했지만요. 아이들의 아빠가 기저 질환자인 관계로도 여러 긴장과 두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교육이 건강하게 실현되기 위해 불을 켜고 함께 길을 갈 동반자들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5학년 학기 말에 적응기를 시작한 큰아이를 필두로 생각만큼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십여 년의 시간을 보낸 고향 같은 곳을 떠나 생면부지의 낯설음과 어색함은 겨울에 떨리는 추위만큼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였을까,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

육철학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천천히 저희 가정 속으로 스며들며 손을 내밀었고 저희도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 가며 조금씩 대화가 오가고, 만남이 생기기도 하였습니

다. 작은 아이의 입학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된 학교 생활. 정신없이 두 아이의 돌봄을 수행하며 되도록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도 마음도 사실 지쳐있을 때여서 때로는 몸이 부서질 것 같기도 했지만, 어두운 밤길에 촛불을 켜고 걷는 사람처럼 켜진 불만 보고 가는 심정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 일반 학교에서는 접하지 못하여 생소했던 매달의 학급모임과 학년별 청소 분담 그리고 학교 회의가 초반에 느낀 어려움에서 조금씩 친근함으로 봄날처럼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속에 마련된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얼굴을 잠시나마 볼 수 있게 되고, 교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보이지 않는 기적처럼 바뀌어 가는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우선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점퍼에 묻은 솔한 흙먼지들을 털게 되고, 전보다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즐거워졌다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봄 행사를 통해 타 학년과의 교류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며, 하지제를 통해 내면의 용기를 꺼내 스스로 체험하는 시간을 만났음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타 학년의 연극이나 오이리트미 공연을 접할 수 있어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해졌으며 1학년이 8학년과의 자매학급을 통해 소소한 정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연결되었던 것은 무척 따스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가을 무렵에는 미카엘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용기의 방향성을 확인하며 즐거움을 한껏 느꼈고, 겨울 초입 1학년은 사과 빛 축제를 통해 내면의 빛을 밝히고 걸어가는 과정을 접하기도 하였어요. 여러 행사 말고도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언어의 한계가 알미워지기도 하네요.

아직 아이들과 함께 1년여의 시간을 보냈을 뿐이고 그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나 답답함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앞으로의 12학년까지의 생활이 더욱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 내내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과 정신성이 미소로 동행하고 있고, 또한 가족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건강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정성 어리고 친절한 안내를 통해 그 고유함을 지지받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들이 쌓인다면 저희 가족처럼 지금까지의 10년 중의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너머의 건강까지도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저 우주에 있는 반짝이는 별들처럼요.

짧은 학교생활의 소회를 담는데 한없이 부족한 글이지만, 같음하며... 문득 작년 발도르프 도움 수업 교사 양성과정에서 발췌한 글을 통해 그 정신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별이 내 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의 나이다.”





## 옥길동 코로나 적응기

박최산하 부 박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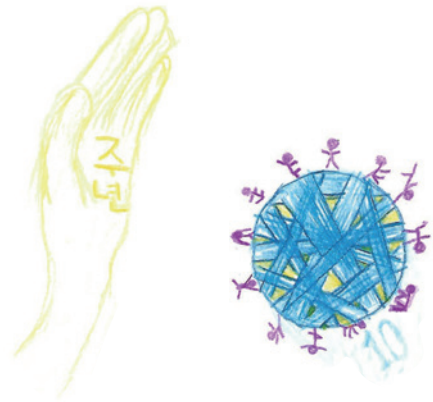
2020년 4월. 아이의 1학년 등교가 시작되었다. 두세 명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모둠별로 시간차를 두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생태공원과 근처의 산(아외)에서 수업을 시작했고, 천천히 학교로 들어갔다. 그때 학교 쪽문을 들어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 길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따뜻한 9월에 입학식을 했다. 학교 주변은 낮은 산과 공원이 많고 새소리,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 눈이 많이 온 겨울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뒷산으로 올라가 눈썰매를 소리지르며 신나게 탔다.

2020년도는 마스크를 쓰고 아이와 산책을 하며 코로나에 적응하고 이사 온(옥길동)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냈다.

2021년도엔 서.자.발. 가족들이 함께하는 텃밭에 참여했다. 생명역동농법을 접하게 되고 여러 가족분을 만나게 되었다. 긴 시간 이곳에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감자, 딸기, 아욱, 수박 등을 심어 꽃도 보고 수확도 해보았다. 수확한 작물들은 정말 맛있었다. 주말마다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작물들과 꽃과 곤충들과 해와 바람과 놀았다.

4학년 아이들과 부모님이 만든 원두막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썸을 많이 가졌다. 야생화(찔레장미, 달맞이꽃, 이메리스 등)와 오이, 토마토, 부추, 호박, 목화, 벼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케모마일 꽃으로 차를 만들어 먹었다. 주변에서 씨앗과 모종을 주면 감사히 받아 텃밭에 심고 가꾸었다. 여름과 가을 사이 백일 동안 피어 있는



키 큰 백일홍도 보았고, 여름비가 오고 나면 텃밭이 정글로 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을엔 공동논밭에서 봄부터 잘 자라고 있던 벼를 수확했다. 선배님의 도움으로 벼 베는 즐거움도 느꼈다. 텃밭 한 칸에서 양봉을 하시는 선배님의 부지런한 벌들이 텃밭 열매를 잘 맺게 했다고 믿는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도 꽃과 화분이 늘고 있다. 눈 가는 곳마다 예쁜 것들이 보인다. 마음도 예뻐지고 있다.

학교는 2020년에 취소되었던 많은 행사를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8학년, 12학년 연극과 자유프로젝트, 오이 리트미 공연 등을 보면서 이곳이 발도르프예술학교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었다. 아이는 언니, 오빠들의 모습을 즐겁게 보면서 특정 장면을 기억으로 남기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매일 주문처럼 외우는 개인 시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 시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2022년도에 아이가 받은 개인 시를 보고 처음으로 부모인 나도 그것이 갖고 싶었다. 개인 시, “저도 개인 시 주세요”.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도 교사회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함으로 아이가 1, 2학년을 즐겁게 발도르프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2022년도 학사일정을 홈페이지에서 접하면서 올 한해의 많은 학사일정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진행될 것 기도한다.

# 너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봄바람, 나는 사계절을 봄바람 속에 살지

신아인, 연우 모 윤채원

“쓰는 건 쉽지. 뭘 써야 할지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래도 일단 써 봐. 시작이 반이라잖아.”

시작도 못 한 채 마감일을 훌쩍 넘긴 엄마에게 조언을 건넨 아이는 자러 들어갔다. 글 좀 써 본 아이답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 본다. 아이의 말이 맞을 테니.

지난 가을에는 “철학이 뭔지 알아?”라는 질문을 해서 엄마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아이다. “철학은 삶에 대한 학문이래.”라고 시작된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더니 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가혹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타고난 이야기꾼인 수미 선생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 소크라테스의 시대로 다녀온 것이 틀림없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쯤 되는 심정으로 들었으리라.

다른 학교에 다녔다면 어땠을까? 한글을 떼자마자 각종 설명서를 즐겨보던 아이였다. 엄마가 놓친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아이였다. 그러니 언젠가 됐든, 어느 결에서든 소크라테스를 만났을 것 같다.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저 지식이었을



것 같다. 지금처럼 12살의 나이테로 소크라테스를 만나지는 못했을 것 같다.

사실 나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는 담대한 심장>을 가진 부모는 못 되었다. 끝내 되지 못할 것도 같다. 없던 담대함이 발도르프학교 학부모가 되었다고, 노력해본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느린 걸음으로 함께 걸었다. 뒤에서 걸었다. 거리를 두고, 가끔은 나란히 걸으며 언제나 곁에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입학 때 하지 않기로 한 약속들은 아이 입장에서 <금지>가 아닌 <보호>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사과를 먹으려던 네게 ‘초콜릿을 먼저 주고 싶지 않은 거야!’라고 이야기했다.

학교 문을 나서면 만나지는 발도르프가 아닌 세상. 버스 안에서 만나는 영상, 식당에서 만나는 뉴스, 병원에서 만나는 만화는 아이가 먼저 안 보려고 애쓴다. 그 모습이 오히려 애처로웠다. 그럴 땐 그냥 같이 봤다.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순기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너도 만나게 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즐거움도 과하면 자극이라는 생각에 집에서의 시간은 주로 심심하게 보내던 우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서부터 더 심심해졌다. 심심해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

은 사람들과 보내도, 뒤돌아보면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즐거운 날들이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말을 하루에도 열두 번은 듣는 엄마였으니까. 아이를 행복하게 해 주는 건 참 쉬웠다. 엄마라는 이유로 별것 아닌 것에도 쉽게 기뻐하는 아이였다.

6학년으로 접어든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예쁘지는 않다. “엄마는 예뻐지고 싶지 않아?”라고 물어볼 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응수해 준다. “엄만 그럴 줄 알았어!”라며 까르르 웃더니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다.

어쩌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도 어쩐지 자랑스럽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어느 날에도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건넨 첫 마디는 “엄마 다 썼어?”였다. 네가 했던 이야기 중 쓰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완성을 못 했다고 했더니 수미 선생님이 관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무엇을 기억 못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우리 선생님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셔.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선생님이 너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고, 선생님도 그래 봐서 안다고 말씀 해주셔.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셔. 에포크 시간에 우리는 고요해지고 집중할 수 있어.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리시더니 나뭇잎이 새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에포크 시간이 시작된 거지.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를 빠져들게 해. 선생님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재능을 가지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요해질 수 있는 거야. 다 같이 집중할 수 있

고.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 난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자랑스럽다니 엄마는 덜 자랑스러운 사람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참 좋다.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들, 이 시간들이 천천히 흘러주었으면. 두고두고 그리울 아인이의 어떤 시절은 지금인 것 같으니까.

아인의 말처럼 쓰기 시작하니 끝이 보인다. 처음 글을 쓰겠다고 자원했을 때는 <6학년,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를 써 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나와 내 아이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마음으로 써 내려갔을 다른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기대되고, 학생들의 이야기도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아인이가 내게 어떤 칭찬을 해줄까? 잔뜩 기대된다.

# 나비의 꿈

남소율, 소예 부 남해식

## #1. 알, 세상에 나와

알을 깨고 나와 처음 만난 세상은 따뜻하지만 안전하  
지만은 않았고, 끝없이 넓었지만 처음부터 저 멀리 날아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  
법과 날개를 펼칠 순간을 꿈꾸며 잠이 듭니다.

## #2. 애벌레, 허물을 벗어내며

벗어내고 벗겨내도 서툴고 초라한 모습은 그대로인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꿈꾸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꾸지만, 눈을 뜨면 여전히 서툰 몸짓으로 꿈틀거릴 뿐입  
니다.

## #3. 친구, 함께 또 각자의 길로

함께 있던 친구는 험한 현실에서 날개는 더 이상 도움  
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 섞인 말을 남기고 하나 둘 각자의  
길로 떠나갑니다. 문득, 홀로 남겨져 뒤쳐질까 불안한 맘  
도 들지만. 날개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  
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 #4. 번데기, 오랜 시간을 보내며

껍질에 갇힌 채 날아오를 희망조차 흐릿해진 어느 날.  
이제는 차라리 껍데기 안에서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  
이 들 때 즈음 견뎌온 시간만큼 단단해진 껍질을 무언가  
가 뚫고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 #5. 날개, 자유롭게

껍질을 깨고 어느새 나의 일부가 된 날개. 내 작은 날  
개짓이 저 먼 곳까지 큰 바람을 일으키진 못하더라도, 곁  
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바  
람이 되어 분다면, 누구보다 더 높고, 더 빨리 날지 못한  
다 해도, 작은 씨앗을 날려 보내 온 세상을 꽃밭으로 뒤  
덮힌 평화로운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곳에서 누구  
보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멈추지 않으리라 다  
짐해 봅니다.

## #6. 별이 되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십 년은 어느 지점인가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  
은 모습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날개  
짓이 별에 닿아 모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 서자발의 천재들

윤준하, 태란 모 김종선

준하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일상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만난 다양한 천재님들이었다. 큰아이가 입학 전에 역곡교 건너 생태공원 인근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고 현재의 새 학사를 지을 때 비용 절감을 위해 부모님들의 다양한 노력이 더해졌는데 부모님들은 의무 참석으로 모두 모여서 공사장 작업에 투입되어 조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때 어떤 아버님이 전문 기계를 가지고 와서 벽에 샌딩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벽을 가는 기계도 있구나 하고 놀랐고 이런 작업을 하는 이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사실이 많이 신기했고, 내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해보지 않았던 노동이 힘들기도 했다. 우리 집은 문과 집안이라 무엇인가 고장 나면 당연히 사람을 불러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건물물을 짓고 인테리어 등의 전문적인 일을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다. 이런 천재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도 계속 놀라움의 연속인 것이 학교를 지어나가면서는 페인트 작업 천재가 등장한다. 다양한 도구의 사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일렬로 서서 벽을 하얀색으로 색칠했다. 벽을 칠하면서 꿀팁을 전수받고, 작업을 하면서 각자 아이들의 성장하는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누면서 교류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페인트 작업 이후에는 라주어 천재가 등장해서 자연과 비슷한 색의 물감으로 하얀 벽을 아이들의 발달단계



에 따라서 다른 색상들로 물들여가는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진입한 느낌이었고 이 천재들은 무엇이지? 또 한 번 몹시 놀라웠다. 부모들이 힘든 노동에 지쳐갈 무렵에 학교 옆 약초 공원에 새참이 등장하고 요리 천재님들이 몇십 명 분량의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다. 긴 작업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잊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몇 학년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려받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다. 근래 코로나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모두 모여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작업을 노동으로 배워가면서 소통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요즘, 평범한 천재, 서류 천재, 축구 천재, 예술 천재, 공부 천재 등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천재들이 힘을 내주길 바란다. 라주어 물감이 하얀 벽을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듯이 물들여가고 어우러져가면서 예술작업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처럼 학교 성장을 위해 천재들의 빛이 더 밝게 퍼져나가길 바라본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소식지에 올릴 글을 모집한다가 겁도 없이 글을 쓰겠다 자원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짧고 서투른 글로나마 서자발 천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도 언젠가 글쓰기 천재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 Once Upon a Time in 서자발

이지아, 민아, 윤아 부 이재철

인생에서 어떤 일은 기억이 생생하고 디테일이 살아 있을 시점에 이해가 잘 가지만, 어떤 일은 기억이 희미해지고 디테일이 엉키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일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감이 생기고 나서야 더 잘 이해가 가는 것 같다. 우리 학교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과 같은 모습의 학교가 되었나?’ 를 생각하다 보니 이젠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2년 초. 이 때는 개교식도 하기 전이라, 한창 학교를 만들 때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모든 게 허접스러웠다. 모든 게 낡설었고 불안했고 서툴렀다. 계약했다는 건물(구 옥길동 건물)을

가서 보니 그것도 허접스러웠고, 정식 학부모도 아닌 예비 학부모(?)들과 만나서 보니, 서로 낯설었고, 게다가 초창기에 겪은 혼란들까지 겹쳐져서 오해와 상처도 많았다.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때 많은 학부모들은 속으로 ‘진짜 학교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군대 시절에 봤던, 서로 기대어 세워놓은 총들 - 흔히 ‘사총’이라고 부른다 - 처럼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와장창 하고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지점에서 접속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써야 할지, ‘그래서’ 를 써야 할지 고민된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만드느라 애를 썼다. 몇몇 분들의 열정은 정말 장난 아니었던 것 같다.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모여서 힘을 보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학교를 왔다 갔다 한 적도 많았다. 난방이 잘 안 되어서 덜덜 떨어가면서도 밤 늦게까지 회의를 했다. 자정을 넘어서 집에 간 적도 많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논의했어야 했나?’ 싶은 일들도 있긴 하다.)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아니다, 교실 벽에 무슨 재료를 써야 한다 아니다, 뭘 뿌려야 좋다 안 좋다, 향이 이러니까 이게 좋다 아니다 등등... 지금 와서 보면 무슨 논의 회의들을 그렇게나 많이 했나 싶다. 다들 약간 미쳤었던 것 같다.



나는 학부모라 학부모 쪽만 알지만, 교사 쪽도 장난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돌아봐도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제일 힘들고 불안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때가 대부분 1,2,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시작할 때 1,2,3 세 개 학년으로 시작했으니, 오죽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교사회의 큰 축이었던 장은심 선생님과 오윤선 선생님은 이런 불안한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뚜벅 뚜벅 갈 길을 갔다. 이게 큰 안정감을 준 것 같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점점 학교 가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우리 학교는 점점 제법 학교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아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가본 길 치고는 놀라우리만치 그 시기에 딱 필요한 분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셨다. 여기에, 초심자의 행운이랄까, 지금 와서 보면 처음 가본 것 치고는 잘 된 것도 많았다.

내가 나를 보건대, 나는 확실한 방법론을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 - 이런 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 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다. 솔직히, 발도르프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지 말지를 고민할 때 발도르프 교육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해도 잘 안 갔고, 다소 마음에 걸렸다. 무슨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이니 하는 표현들도 그렇고, ‘아이의 영혼의 힘이 부모를 이끌어서 이 학교에 오게 만든다.’ 라니, ‘정신이 먼저 생기고 나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학교도 그렇게 생기는 거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말들이 반쯤은 믿어진다. 학교 초창기에도 ‘이러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철저하고 세세하게 기획을 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기획을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보내준 것처럼 느껴진다. 이후에 지금 우리 학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랬고, 조직 개편 때도 그랬다. 정말로 그 시기에 딱 필요한 분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은 우리 학교와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 없는 분도 계신다. 그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뿐이다.

우리 학교에서 10년을 보낸 1회 졸업생 효진이가 발표 도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제가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옥길동 건물에 있을 때, 학교에 달달한 향이 났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이런 느낌은 평생 잊지 못 할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 장면들이 떠올라서 속으로 살짝 울컥했다. 어른들이 한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었다. 돌이켜보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돌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해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누군가가 있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던 것 같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크고 작은 관심과 고민과 정성과 사랑과 희생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의 10년

최동근, 효진 부 최경수

안녕하세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3학년으로 입학해 이 학교의 첫 졸업생이 된 최동근, 최효진의 아빠 최경수입니다. 졸업식 당일 제가 느낀 감정과 지난 10년간 여기서 보낸 시간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12학년 졸업식 날이 왔다. 10년 전 학교를 시작 할 때 언제 오나 하던 그날. 9시에 학교에 가니 졸업식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이 먼저 와 계셨다. ‘변함없이 일한다, 졸업을 축하한다, 애들 잘 키웠다.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보면 울 것 같으니 우리 이따가 보지 말자.’ 등으로 10년간 함께한 선생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꽃다발을 만들고 계신 상화&세인&상호 어머님도 만나 그간의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았다. 잠깐 여유시간이 있어 학교를 둘러보니 코로나19로 12학년 졸업식이 많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졸업을 축하해주는 교사회와 학부모님들과 동생 학년들의 따스한 손길들을 느낄 수 있었다.

10시에 시작한 아이들의 졸업식을 보고 있노라니 이곳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아무것도 없이 들판에 덩그러니 세워진 건물에 발도르프 학교를 세우겠다고 모인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 길

을 함께 걸어 이렇게 졸업식을 맞이한다. 처음 가는 길이라 우리 부부가 방황할 때마다 남매는 성장으로 이 길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해 주었다. 학교는 우리 부부가 선택했지만, 그것을 채운 것은 아이들이었다.

지난날들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같이 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칠 수가 있었다. 아이들이 각자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꿈을 이야기할 때 ‘아 잘 자라 줬구나! 여길 잘 왔구나! 12학년 까지 마치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졸업식 마지막 순서가 되어 아이들이 꽃문을 걸어 나갈 차례가 되었다. 입학식 때는 부모의 품을 떠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꽃길로 걸어간 아이들이 졸업식 때는 열매가 맺은 꽃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울컥했다.





졸업식이 마무리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데 10년간 알고 지냈던 아이들이 내게 와 인사를 했다. 11학년 승희가 찾아와 “아저씨, 이제 우리 못 봐요? 이제 우리 사진 누가 찍어줘요?”라고 물었다. 아저씨보다 더 잘 찍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자 씩 웃는다. 아쉬운 마음에 승희와 사진을 한 장 찍은 후 옆에서 보고 있던 11학년 지아와도 사진을 찍었다. 다른 아이들은 내게 눈인사를 건넸다. 부모님들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붙잡고 같이 기뻐할 순 없었지만 눈인사나 주먹 인사로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10년 전 발도르프교육이란 것을 아이들에게 시켜보겠다고 일반 학교에 잘 다니던 남매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 발도르프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책을 사서 읽고, 몇몇 교육센터를 다니면서 남매에게 발도르프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결국 지인들의 소개로 인지학센터 관계자분들이 세운 이 학교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 그곳은 학교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다. 창문을 어떻게 낼지 출입문을 어떻게 할지 칠판과 책상은 어떤 것으로 할지 등 결정된 게 하나도 없었다. 또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라는 이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정리된 것이 없었기에 무엇이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처음 하는 학교생활이다 보니 서로 간에 많은 갈등과 부딪침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부딪침은 학부모들이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매달 있는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아이들이 집에서는 쉬를 누리고 학교에서 에너지를 쏟게 해달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쉬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아내와 나는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선생님께 아이들이 충분히 배워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으로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나누어 우린 부모

로서 역할만 충실히 하고 교육적인 부분은 학교에 맡기로 했다.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오고 갔고,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늘 함께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생각했다. 우리가 동근이를 한 살 줄여 동생 반에 보내면서까지 남매를 이곳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 길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성장으로 그 길에 대답을 해주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남매는 때때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 자신들을 보내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언젠가부터 선생님들과 상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돌려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도 부모님의 삶을 사세요.”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들은 부쩍 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제 나이 오십이 되도록 제가 아직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남매는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남매는 그것을 여기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 와서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매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넘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 후배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또한 남매의 성장에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0여 년 전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계발도르프학교가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부모님들과 그곳을 방문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큰 건물과 운동장, 그리고 1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보며 부러워하고, 우리에게도 어서 이런 날이 오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날이 왔다. 10년!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올 것 같지 않던 그날이 드디어 왔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10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내신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10년 전 6명의 선생님과 32명의 아이로 시작한 학교는 10년이 지난 지금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전임선생님만 32분인 학교가 되었고, 첫째 졸업생을 14명이나 배출한 대단한 학교가 되었다. 이런 학교

의 성장은 교사회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노력과 그 속에서 잘 자라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처럼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또 다른 10년의 도약을 기대한다.





# 학교 행사



8

# 개학식 & 방학식









# 봄행사













# 용기의 날





# 소풍





# 체육대회





# 오프닝데이






# 하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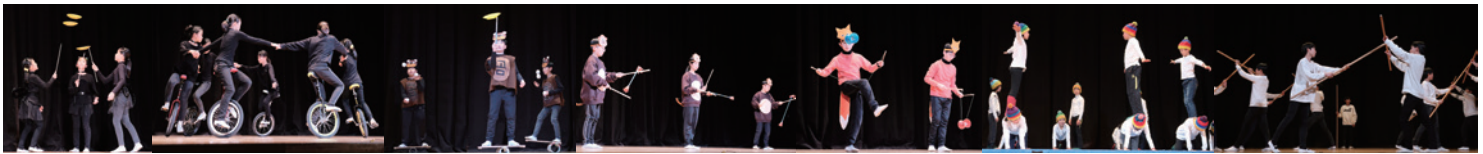
# 예술발표회



서울자유   
발도르프 학교  
2012년도 1학기  
예술발표회  
2012. 7. 14









# 행사&축제





# 입학설명회









# 특별행사 \_ Wow Day





# 특별행사 \_ 100주년





# 학년별활동









# 상급실습



농업



측량



생태







사회

